

이종범 연일 홈런...KIA 단숨에 2위

윤석민 8이닝 1실점·로페즈 세이브, SK 2-1 꺾고 LG와 나란히



호랑이 군단이 비룡 군단을 상대로 5연승을 내달리며 공동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백전노장’ 이종범의 한방을 앞세운 KIA 타이거즈가 5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8차전에서 2-1로 5연승에 성공했다. 1경기 차로 앞서있던 2위 LG가 5일 롯데에 패배를 기록하면서 KIA의 순위는 공동 2위로 상승했다.
 8회까지 2피안타 5사사구 6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장식한 윤석민이 시즌 6승을 기록했고, 필승카드로 투입된 로페즈는 귀중한 세이브를 챙겼다.
 선취점은 윤석민이 내줬다.
 KIA 선발로 출격한 윤석민이 2회 말 선두타자 정근우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박재홍의 희생번트에 이어 김연훈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SK가 먼저 점수를 뽑았다.
 3회초 KIA가 최훈락의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차일목의 병살타가 나왔다. 이현곤·이용규의 연속안타 이후에는 신종길이 우익수 플라이에 그치면서 득점없이 이닝이 마무리됐다.
 이후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윤석민이 3회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면서 5회까지 삼자범퇴를 기

록했다. 7회에도 탈삼진 두 개를 더하며 SK의 발을 묶었다.
 SK가 먼저 투수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7회초 SK가 6이닝 4피안타 2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으로 KIA 타선을 봉쇄했던 선발 매그레인을 내리고 좌완 고효준을 투입했다.
 4번타자 김상현이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5번을 맡은 이종범이 좌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터트렸다. 전날 글로버에게 홈런을 뽑아냈던 이종범은 이를 연속 홈런쇼를 펼치며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2사에서 최훈락이 볼넷을 골라내며 공격의 불씨를 살렸고, 차일목의 우전안타와 대타로 들어선 김선빈의 볼넷으로 만루가 세워졌다.
 SK가 정우람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이용규가 재치있는 타격으로 투수 킷을 살짝 넘기며 번트안타를 만들었다. 그사이 3루주자 최훈락이 홈에 들어오면서 KIA가 2-1 역전에 성공했다.
 KIA는 승리를 지키기 위해 로페즈를 감쪽 카드를 내밀었다.
 1점차로 앞선 9회말 윤석민에 이어 로페즈가 소방수로 투입됐다. 첫타자 최정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로페즈는 이효준의 볼넷과 정근우의 안타로 1사 1·2루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로페즈가 박재홍과 최경철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팀에 5연승을 선물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종범이 5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 7회초 1사에서 고효준을 상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좌월 솔로포를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종범 “야구팬들에 죄송” 맥주 캔 사태 사과

경기 도중 팬과 말싸움을 벌인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종범(41)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종범은 5일 문학구장에서 SK 와이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팬들에게 죄송하다. 고참 선수가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경기에서 6번 타자겸 우익수로 나온 이종범은 5회초 SK 선발 글로버를 상대로 솔로포를 터트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지만, 9회말 박정권의 타구를 처리하던 중 관중석에서 맥주 캔이 날아오자 외야석의 팬과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다. 이종범과 말다툼을 한 관중은 실제 맥주 캔을 던진 장본인은 아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야구 왕중왕전 우승 ‘눈앞에’

덕수고 2-0 꺾고 결승...충암고와 한판승부

야구 명문 광주일고가 2011시즌 전반기 왕중왕전 우승 타이틀에 도전한다.
 광주일고는 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덕수고와의 대회 준결승전에서 2-0으로 영봉승을 거두고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해 왕중왕전 초대 챔프 광주일고는 6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야탑고를 꺾고 결승에 오른 충암고와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인다.
 4회말 광주일고 5번 타자 정경운의

男배구 프랑스 연파 ‘파란’

2011월드리그, 최흥석 ‘펼펼’...8년만에 승리

‘짧은 피’를 앞세운 패기의 한국 남자배구가 강호 프랑스에 2연승을 거뒀다.
 박기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은 5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대륙간라운드 D조 4차전에서 프랑스를 3-1(27-25 19-25 25-23 25-16)로 격파했다.
 지난해 세계 최강 쿠바를 이긴 데 이어 4일 8년 만에 프랑스를 꺾은 한국은 이날 경기마저 잡으면서 3승1패로 승점 9점을 쌓았다.
 프랑스는 세계랭킹 12위로 23위의 한국보다 한 단계 위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이번 대회 전까지 프랑스에 8연패를 당했지

만 2연승 덕분에 상대 전적 10승16패를 기록하며 격차를 줄였다.
 한국은 전날 승리를 이끈 최흥석(경기대), 전광인(성균관대), 김정환(우리캐피탈) 등 ‘짧은 공격수 삼총사’가 이날도 펼칠 날았다. 레프트 최흥석이 가장 많은 17점을 올렸고 전광인과 김정환은 각각 12점과 11점을 작성했다. 여기에 센터 신영석(우리캐피탈)이 고비 때마다 블로킹과 속공에 성공하면서 14점을 작성해 상대 추격 의지를 꺾었다.
 1세트에서 전광인의 블로킹 등으로 3-0으로 출발한 한국은 블로킹, 속공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면서 9-3으로 리드했다. 하지만 상대 블로킹에 막히며 15-15 동점을 허용, 두

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흥석의 블로킹으로 27-25로 1세트를 따냈다.
 2세트에서 심기일전한 프랑스에 밀린 한국은 3세트부터 장기간 빠른 배구와 탄탄한 조직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16-18로 뒤질 때 박기원 감독은 “과감하게 서버를 넣고 공격하라”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주문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19-21로 뒤진 한국은 김정환의 스파이크, 최흥석의 블로킹, 상대 공격 범실 등을 묶어 23-21로 단번에 역전했다. 이어 최흥석이 터치아웃을 성공시켜 매치포인트에 도달했고 신영석의 속공으로 3세트를 마무리했다.
 4세트에서는 한국은 신영석 블로킹과 최흥석의 서버에 힘입어 프랑스를 25-16으로 여유있게 누르며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연합뉴스



5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11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대륙간라운드 D조 4차전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3차전에 이어 프랑스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나 축구대표팀 ‘차·포’ 다 빠졌다

내일 전주서 평가전

가나 축구대표팀이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제외한 채 7일 오후 8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 축구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르게 됐다.
 가나축구협회는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www.ghanafa.org)를 통해 “대표팀의 주장인 존 멘사(선덜랜드)가 한국과의 친선전에 나서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어 케빈 프린스 보아텡(AC밀란)과 마이클 에시엔(헬시), 프린스 타고에(파르티잔), 안드레 아예우(마르세유), 새뮤얼 인롬(트니프르)도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대회 목표 종합우승

제19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목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화순에서 열린 전남장애인체육대회서 목표(금 42, 은 21, 동 12)가 1위에 올랐고, 여수(금 27, 은 22, 동 22)와 순천(금 27, 은 21, 동 20)이 그 뒤를 이었다.
 모범선수단상은 화순이 수상했고, 지난해 6위에서 4위로 뛰어오른 광양은 성취상을 받았다. 장려상은 장흥에게 돌아갔다. 탁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순천 대표 서명철(46)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는 20개 종목에서 인원·선수 등 1900여 명이 참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줄

신양파크호텔 Beer Party!

매일 저녁 Cool하게 쏘대!!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 (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6시 부터 12시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TEL. 062)228-8000 / 062)221-4130